

杜甫 年譜

*712년 하남성 鞏縣에서 출생

*杜陵(漢 宣帝墓), 少陵(한 선제 황후묘) 부근에 거주. 杜陵野老, 少陵野老, 杜少陵

*25세(736) - 進士試 낙방

*33세(744) - 4월 낙양에서李白 만남 - 34세 가을에 山東에서 다시 만난 후 이별.

*35세 - 「春日憶李白」, 「飲中八仙歌」

*36세(747) - 과거시험에 낙방

*44세(755) - 安祿山の 亂으로 45세 6월에 가족을 鄜州로 옮기고 肅宗이 즉위한 寧夏의 靈武로 가던 중 반군의 포로가 되어 장안으로 압송. 「月夜」

*46세(757) - 「哀江頭」, 「春望」 - 이해 4월에 장안 탈출 - 5월에 左拾遺

*47세 - 華州의 司功參軍으로 좌천. - 「曲江二首」

*48세 - 낙양에서 화주로 돌아가는 도중에 「新安吏」, 「石壕吏」, 「潼關吏」, 「新婚別」, 「垂老 別」, 「無家別」. 「贈衛八處士」. 「夢李白二首」. 「天末懷李白」 - 12월에 成都로 출발

*49세 - 봄에 劍南西川節度使 裴冕의 도움으로 浣花溪 옆에 草堂 짓다. - 「蜀相」

*50세(761) - 12월에 嚴武가 成都尹 겸 檢南절도사로 부임 - 「不見」

*51세 - 4월에 代宗 즉위 - 7월에 업무 入朝 - 檢南병마사 徐知道의 반란으로 梓州로 피 신

*53세 - 성도를 떠나려는데 1월에 업무가 다시 檢南절도사로 부임 - 6월에 檢校工部員外 郎으로 임명되다

54세(765) - 4월에 업무 사망 - 5월에 가족과 함께 성도를 떠나 여러 곳을 전전하다. - 「 旅夜書懷」

- *55세 - 夔州(지금의 남경)에서 「咏懷古迹五首」, 「秋興八首」 - 56세 「登高」
- *57세(768) - 1월에 夔州를 떠나 장강을 따라 내려가다 - 船上生活 - 연말에 岳陽樓 아래 에 정박 - 「登岳陽樓」 - 이후 악양과 潭州(지금의 長沙)를 왕래
- *59세(770) - 봄에 歌客 李龜年 상봉, 「江南逢李龜年」 - 江閣에 거처 - 늦가을에 담주에서 악양으로 가던 도중 배 안에서 客死 - 현 杜甫墓 7곳.

1.春日憶李白

白也詩無敵 飄然思不群
清新庾開府 俊逸鮑參軍

開府儀同三司를 지낸 남북조 시대의 庾信(513-581)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前軍參軍을 지낸 남북조 시대의 鮑照(414-470)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

2.飲中八仙歌

하지장은 말 탄 것이 배 탄 듯하여

눈이 흐려 우물에 빠지면 물속에서 잠을 자네

여양왕(汝陽王)은 술 세말에 비로소 조천(朝天)하고

길에서 누룩 수레 보면 입에서 침 흘리며

주천(酒泉) 태수 못됨을 한탄한다네

좌상(左相)은 하루에 술값이 만전(萬錢)이라

고래가 백천(百川)을 삼키듯 술을 마시고

청주를 즐기고 탁주는 피한다네

최종지(崔宗之)는 깨끗한 미소년이라

술잔 들어 백안(白眼)으로 푸른 하늘 바라보니

맑기가 옥수(玉樹)가 바람 앞에 서있는 듯

소진(蘇晉)은 부처 앞에 항상 재계하는데
취하면 가끔씩 참선을 안 한다네

이백은 술 한 말에 시 백편 짓고
장안의 시장터 술집에서 잠드는데
천자가 불러와도 배를 타지 못하고
스스로 일컫기를 “신(臣)은 주중선(酒中仙)”

장욱(張旭)은 술 석 잔에 초성(草聖)이라 전하니
모자 벗고 왕공(王公) 앞에 맨머리 들어내나
붓 휘두르면 종이 위에 구름안개 같은 글씨
초수(焦遂)는 술 닷 말에야 이제 막 우뚝하여
고담(高談)과 웅변으로 사방을 놀라게 하네

知章騎馬似乘船 眼花落井水底眠

汝陽三斗始朝天 道逢麴車口流涎 恨不移封向酒泉

左相日興費萬錢 飲如長鯨吸百川 銜盃樂聖稱世賢

宗之瀟灑美少年 舉觴白眼望青天 皎如玉樹臨風前

蘇晉長齋繡佛前 醉中往往愛逃禪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

中仙

張旭三盃草聖傳 脫帽露頂王公前 揮毫落紙如雲烟

焦遂五斗方卓然 高談雄辯驚四筵

3. 月夜

오늘밤 부주(鄜州) 달을

아내 홀로 보겠지

멀리서 어여쁜 어린 자식들

장안 생각하는 줄 모르고 있으리

향기로운 안개에 머릿결 젖어있고
맑은 달빛에 하얀 팔이 시리리라
언제나 앓은 휘장, 창에 기대어
눈물 마른 두 사람을 함께 비칠 것인가

今夜鄜州月 閨中只獨看
遙憐小兒女 未解憶長安
香霧雲鬢濕 清輝玉臂寒
何時倚虛幌 雙照淚痕乾

이 시도 두보가 장안에 유폐되어 있을 때 부주(鄜州)의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작품이다. 그는 어느 날 밤 장안에서 “홀로” 달을 보고 있다가 문득 역시 “홀로” 달을 보고있을 부주의 아내를 떠올린다. 함께 보아야할 달을 각각 다른 곳에서 “홀로” 보고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마음은 벌써 아내가 있는 부주로 가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절절한 그리움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아내에 대한 묘사만으로 일관한다. 이것이 이 시의 묘미이다.

제2련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은 장안에 있는 아버지의 부재(不在)를 실감하지 못한다고 풀이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달을 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철없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제3련은 달을 보며 서있을 아내를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두보 나이 45세 때의 작품인 것으로 보아 아내도 마흔이 넘었을 터인데 그는 아내를 젊은 아가씨인양 아름다운 말로 묘사하고 있다. “향기로운 안개(香霧)”, “구름 같은 머리(雲鬢)”, “옥 같은 팔(玉臂)” 등의 묘사가 그것이다. 안개가 향기로운 것은 아내의 머릿결에서 풍기는 향기 때문일 것이다. 아내의 팔이 옥(玉)과 같은 것은 달빛을 받아서 하얗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내의 머릿결이 안개에 젖어있고 팔이 시릴 것이라 말한 것은 아내가 달을 보며 오랫동안 서있으

리라고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그는 순전히 상상을 통하여 아내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실은 아내에 대한 자신의 애절한 그리움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련에서는 다시 만날 미래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 지금은 각각 “홀로” 달을 보지만 언젠가는 이 달이 “두 사람을 함께 비칠” 것이리라.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그날엔 “눈물 마른 두 사람”을 비칠 것이라고 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즐거운 얼굴로 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울면서 달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4.春望

서울이 부서져도 산하(山河)는 남아있고
장안성(長安城)에 봄이 드니 초목이 우거졌네
시국을 생각하니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소리에도 놀라는 마음
봉화 불, 석 달이나 이어지고 있으니
집안의 편지는 만금(萬金)의 값어치
흰머리 굵을수록 더욱 성글어
비녀도 이기지 못할 듯하네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755년 안록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키고 그 이듬해 6월에는 장안이 함락된다. 현종(玄宗)이 서촉(西蜀)에 피난 가있는 사이 7월에는 숙종(肅宗)이 영무(靈武)에서 단독으로 황제에 즉위한다. 이 소식을 들은 두보(杜甫)는 가족을 부주(鄜州)에 피난시켜 놓고 즉위식이 거행되는 영무로 가는데, 도중에 반란군에게 체포되어 장

안에 유폐된다. 그 이듬해 4월에야 장안을 탈출하여 봉상(鳳翔)으로 가게된다. 이 시는 장안을 탈출하기 직전에 쓴 것이다. 두부나이 46세 때의 작품이다.

제1련은 반란군이 점령한 장안에서 봄날에 바라본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장안이 파괴되어 ‘산하(山河)만’ 남아있다고 말함으로써 산과 시내 이외에는 모조리 파괴되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장안성에 봄이 와도 ‘초목만’ 우거졌을 뿐이다. 평상시 장안의 봄날에는 봄놀이하는 사람들로 봄볏을 터인데 반란군이 점령한 장안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초목만 무성하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여, 장안이 파괴되었어도 산하(山河)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란군이 아무리 철저히 장안을 파괴했어도 산하만은 파괴할 수 없다. 산하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산하만은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초목이 우거졌다는 것도 앞으로의 기대와 희망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제2련은 인구에 회자되는 만고의 절창이다. 이 역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물건이다. 그러나 시국에 마음 아파하는 두보에게는 꽃을 보아도 눈물이 흐를 뿐이다. 새소리도 평상시에는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가족과 헤어져 있는 그는 새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란다, 혹시 떨어져 있는 가족으로부터 불길한 소식이 온 것이나 아닌가 해서. 꽃과 새를 의인화(擬人化)한 것으로 보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이다. 즉 꽃도 시국을 아파해서 눈물을 흘리고, 새도 둥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가슴을 놀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1련과 제2련은 다양한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함축적인 표현이다.

제3련에는 가족들과 헤어져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전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소식을 알 길이 없다. “집안의 편지가 만금의 값어치”라 말할 만큼 애타게 소

식을 기다리는 그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이 시를 쓸 당시 그의 나이가 46세이니 머리가 백발일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흰머리”라 한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될 만큼 수심에 쌓여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머리를 긁는 것은 수심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긁어도 긁어도 수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긁을수록 머리만 빠질 뿐이다. 그래서 드디어 비녀도 꽂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성글어졌다. 머리털이 성글어진 정도는 그의 수심의 깊이를 말해준다.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고 가족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참담한 심경을 나타낸 두보의 걸작임에 틀림없다. 또한 개인적인 불행만을 노래하지 않고 개인의 불행을 국가의 운명과 연계시킨 점에서 대시인(大詩人) 두보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5. 曲江二首, 제2수

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酒債尋常行處有 人生七十古來稀
 穿花蛺蝶深深見 點水蜻蜓款款飛
 傳語風光共流轉 暫時相賞莫相違

6. 夢李白二首, 제1수

사별(死別)은 소리 죽여 한 번 울면 그만이나
 생이별은 언제나 슬프고도 슬픈 것
 강남땅 습하고 병 많은 곳으로
 쫓겨난 나그네, 소식 없다가
 옛 친구, 내 꿈속에 들어왔으니
 내가 늘 그리워함을 알고 있었나
 그대 지금 죄짓고 갇힌 몸인데
 어떻게 날개를 달고 왔는가

아마도 생전 모습 아닌 듯하나
 멀리 있어 헤아릴 길이 없구나
 푸르른 단풍 숲 사이로 와서
 칠혹 같은 관산(關山) 밖으로 갔는데
 지는 달빛 들보에 가득 차있어
 아직도 그대 얼굴 비추고 있는 듯
 물이 깊어 파도가 심할 터이니
 교룡(蛟龍)에게 먹히지 말도록 하오

死別已吞聲 生別長惻惻
 江南瘴癘地 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 明我長相憶
 君今在羅網 何以有羽翼
 恐非平生魂 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青 魂返關山黑
 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
 水深波浪闊 無使蛟龍得

「몽이백이수(夢李白二首)」 중 첫 번째 시이다. 두보는 33세 때 자기보다 11년 연장인 이백을 낙양(洛陽)에서 처음 만났다. 이백과 두보의 만남은 그 자체가 세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곧 의기가 투합해서 서로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친교는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헤어진 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못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는 시를 많이 남겼다. 특히 두보가 이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을 많이 썼다.

이 시도 그 중의 하나로 두보 48세, 이백 59세 때의 작품이다. 이백은 그 전 해(58세) 왕위쟁탈전의 와중에서 현종의 열여섯 번째 아들인 영왕(永王)을 도왔다는 죄로 야랑(夜郎)으로 유배되었

는데, 이 시는 이백이 유배지로 가는 도중 무산(巫山)에서 사면령을 받고 강릉(江陵)으로 돌아온 후에 씌어진 것이다. 강릉으로 돌아오면서 이백이 쓴 시가 저 유명한 「조발백제성(早發白帝城)」이다. 이 시기는 안록산, 사사명의 난이 평정되기 전의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이백이 야랑으로 유배되었다는 소문만 들었지 사면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두보가 모르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이래저래 궁금하던 차에 꿈에 이백을 보고 이 시를 쓴 것이다.

1련에서 사별(死別)과 생별(生別)을 대비시키면서 생별이 사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지만 생이별한 사람은 언제나 슬픔에 젖게 된다, 다시 만날 때까지는. 이백과 생이별한 두보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이다. 더구나 이백은 “강남땅 습하고 병 많은 곳”으로 유배된 후 “소식이 없다.” 그러다가 이백의 꿈을 꾸는 것이다. 너무나 보고 싶어 꿈을 꾸는 것이련만 ‘꿈에서 옛 친구를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옛 친구가 내 꿈속에 들어왔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옛 친구가 스스로 나의 꿈속으로 찾아온 것은, 내가 그를 늘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두보와 이백이 나누는 우정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만나서 반가운 마음도 잠깐이고 곧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이백이 지금 유배중이라는 사실을 꿈속에서도 깨달은 것이다. 지금 유배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날개라도 달고 왔는가? 필시 살아서 나를 찾아왔을 리는 없고 아마 죽은 후의 영혼이 왔으리라. 그렇지만 나는 그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당시 이백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꿈속에서도 걱정을 할 만큼 이백에 대한 두보의 우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꿈을 깨니 달빛이 들보에 가득 차있다. 그 달빛 속에 아직도 이백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그러나 친구는 가고 없다, 꿈을 깬으니

까. 그래서 마지막 당부를 한다. 돌아가는 길에 “물이 깊어 파도가 심할 터이니 / 교룡에게 먹히지 말도록 하오”라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유배지로 돌아가려면 장강(長江)을 건너야 하는데 물에 빠져 교룡의 밥이 되지 말라는 즉 길 조심 하라는 당부임과 동시에, 험한 세파(世波)에서 부디 몸조심하여 목숨을 보전하라는 간곡한 당부의 뜻을 함께 표현한 것이다.

7.天末懷李白

涼風起天末 君子意如何
 鴻雁幾時到 江湖秋水多
 文章憎命達 魑魅喜人過
 應共冤魂語 投詩贈汨羅

8.蜀相

승상(丞相)의 사당을 어디 가서 찾을거나
 금관성 밖 잣나무 우거진 곳일레라
 섬돌에 비친 풀은 저 혼자 봄빛이고
 잎새 속 피꼬리는 공연히 좋은 소리
 세 번 찾아 여러 번 천하 계책 나누었고
 양조(兩朝)에 몸 바친 노신(老臣)의 그 마음
 군사 내어 못 이기고 몸 먼저 죽었으니
 길이길이 후세의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을 적시게 하네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映階碧草自春色 隔葉黃鸝空好音
 三顧頻煩天下計 兩朝開濟老臣心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

두보가 성도의 초당에 정착한 직후인 49세경의 작품으로 보인

다. 그는 평소에 제갈공명을 무척 존경해서 이 시 이외에도 「무후묘(武侯廟)」, 「팔진도(八陣圖)」, 「제갈묘(諸葛廟)」, 「고백행(古柏行)」, 「영회고적(咏懷古蹟)」 등의 시를 써서 공명(孔明)에 대한 존모의 정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공명을 언급한 작품은 수없이 많다. 그러니 두보가 성도에 정착하자마자 근교에 있는 공명의 사당을 찾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문자답 형식으로 되어있는 제1련은 빨리 사당에 가서 참배하려는 두보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나 있다. 아마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서 사당을 찾았을 것이다. 드디어 그의 눈앞에 무성한 잣나무가 나타난다. 이 잣나무가 곧 승상의 사당임을 암시한다. 승상이 손수 심었다는 말이 전해오기 때문이다. 또한 사철 푸른 이 잣나무는 승상의 충성과 절개를 상징하기도 한다.

경내에 들어서니 봄빛이 완연하다. 섬돌엔 푸른 풀이 “봄빛(春色)”을 자랑하고 나무에선 새들이 “좋은 소리(好音)”로 지저귀는 아름다운 봄이다. 그러나 풀은 “저 혼자(自)” 봄빛이고 새들은 “공연히(空)” 좋은 소리로 지저귄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황량하고 적막한 사당 풍경임을 암시하고 있다. 푸른 풀과 새들은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아는 듯 모르는 듯, 이곳이 일대영웅 제갈공명의 사당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해마다 봄이 되면 돌아나고 지저귄다. 섬돌에 풀이 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와서 오르내려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어야 할 사당이 이렇게 쓸쓸하고 적막하다니. 여기서 두보는 무한한 감개에 젖는다. 제갈량이 누구인가? 유비가 세 번이나 그를 찾았을 땐 함께 천하를 위한 계책을 논했고, 양대(兩代)에 걸쳐 진충보국(盡忠報國)한 영웅이 아닌가. 참으로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만났건만 불행하게도 천하통일의 위업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애통할 따름이다. 그래서 “길이길이 후세의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을 적시게 하는” 것이다. 남다른 애국심과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후대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제갈

공명을 떠올리며 눈물짓는다는 말이다. 아마 두보는 자신도 그 후대의 영웅들 중의 한 사람으로 자부했을지 모른다. 지금 그도 황량한 사당에서 제갈공명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9. 旅夜書懷

강 언덕 여린 풀에 산들바람 부는데
높은 돛대 밤배가 홀로 떠있네
별들 드리워 평야는 드넓고
달이 일렁거리 큰 강은 흐르네
이름이 어찌 문장으로 들어나라
벼슬은 늙었으니 응당 물러나야지
나부끼는 이네 몸 무엇과 같은가
천지간에 한 마리 갈매기로다

細草微風岸 危檣獨夜舟
星垂平野闊 月湧大江流
名豈文章著 官應老病休
飄飄何所似 天地一沙鷗

765년, 두보 나이 54세 때의 작품이다. 당시 두보는 성도(成都)의 초당에 살고 있었는데, 이 해 4월에 그를 후원해 주었던 절도사(節度使) 엄무(嚴武)가 사망하자 성도를 떠나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양자강을 따라 남하(南下)한다. 이때부터 그는 배를 집으로 삼고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상생활(船上生活)을 계속했다. 이 시는 배를 타고 양자강 연안의 유주(渝州), 충주(忠州) 일대를 지나면서 밤이 되자 배를 강가에 정박시키고 외로운 선상생활의 감회를 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의 제2련이 특히 유명하다. 캄캄한 밤에 두보는 정박해있는 배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평야가 드넓다”고 했다. 밤이어서 평야가 넓은지 좁은지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평야가 넓다고 한

것은 별 때문이다. 하늘 높이 있어야 할 별들이 아래로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다. 들판이 넓으면 아득한 그 끝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법이다. 마치 바다의 끝이 하늘과 맞닿아 있듯이. 그래서 별들이 낮게 드리워진 것을 보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음을 직감한 것이다. 제4구도 마찬가지이다. 캄캄한 밤에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지만 “흐른다”고 한 것은, 강물에 비친 달이 “일렁거리기” 때문이었다. 강물이 흐르지 않았다면 강물에 비친 달도 “일렁거리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제2련은, 정박해 놓은 배안에서 바라본 밤 풍경을 절묘하게 묘사한 명구(名句)로 널리 칭송 받고 있다.

제3련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 첫째, “이름이 어찌 문장으로 들어나라”는 말은 ‘어찌 문장으로 이름을 들어내라, 문장 아닌 보다 큰 정치적인 포부와 경륜으로 이름을 들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시 짓는 일에만 능한 자신에 대한 자겸(自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시 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늙고 병든 자신은 “응당” 벼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제5구의 “어찌(豈)”와 제6구의 “응당(應)”을 반어적(反語的)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문장을 아무리 잘해도 문장만으로 이름이 들어나지 않는 세태를 한탄한 것이다. 자신의 문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늙고 병들었으니 “응당” 벼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도,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응당 벼슬에서 물러날 필요는 없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아직 나라를 위해 봉사할 정열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견해이다.

어느 쪽 견해가 타당한지는 두보에게 물어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나는 후자 쪽의 견해를 지지한다.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바람에 “나부끼며” 정처 없이

떠도는 자신을 “천지간의 한 마리 갈매기”에 비유한 것이다. 이 “한 마리(一)”라는 표현은 제2구의 “밤배 홀로 떠있네”의 “홀로(獨)”라는 글자와 연결되어 당시 두보의 고독감을 배가시키는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제2련의 광활한 풍경과 그 광활한 대지 속의 “한 마리 갈매기”가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한 마리 갈매기 같은 두보의 외로움이 더욱 부각되어 있다.

10.登高

風急天高猿嘯哀 渚清沙白鳥飛迴
 無邊落木蕭蕭下 不盡長江滾滾來
 萬里悲秋常作客 百年多病獨登臺
 艱難苦恨繁霜鬢 潦倒新停濁酒杯

11.登岳陽樓

昔聞洞庭水 今上岳陽樓
 吳楚東南坼 乾坤日夜浮
 親朋無一字 老病有孤舟
 戎馬關山北 憑軒涕泗流

12.江南逢李龜年

기왕(岐王)의 저택에서 노상 만났고
 최구(崔九)의 안뜰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가, 그대 노래를
 바로 이 강남땅 좋은 풍경 속에서
 꽃 지는 시절에 또 만나는 군

岐王宅裏尋常見 崔九堂前幾度聞
 岐王:玄宗의 동생 李範, 好學
 正是江南好風景 落花時節又逢君
 崔九:殿中監을 지낸 崔滌, 현종의 충애

두보가 세상을 떠난 해인 59세 때의 작품이다. 당시 그는 가족을 데리고 양자강을 따라 선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 담주(潭州)에서 우연히 이귀년을 만나 감회를 읊은 것이다. 이귀년은 당대 제일의 가객(歌客)이었다. 두보는 젊은 시절 낙양의 문인, 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를 자주 만났고 그의 노래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1구와 2구는 그때의 일을 회상한 것이다. 당대의 문사(文士)들이 모인 기왕(岐王)과 최구(崔九)의 저택에서 그의 노래를 듣던 그 때는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다. 국가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두보 개인적으로도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귀년과 두보는 이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다. 지금 두보는 이귀년을 만나 그 꿈같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그로부터 40년, 안사(安史)의 난을 거치면서 나라는 기울어지고 두 사람은 처량한 신세로 강남땅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이귀년을 만난 두보의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생계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노래를 팔고 있는 이귀년을 만났는지도 모른다. 현종의 총애를 받으며 왕후장상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이귀년이였다. 두보 자신은 어떠한가? 폐병, 당뇨, 중풍 등 온갖 병마와 싸우면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초라한 신세였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귀년을 40년 만에 만난 두보의 가슴속엔 견잡을 수 없는 감회와 비감(悲感)이 일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구(詩句)는 담담하기 짝이 없다. “바로 이 강남땅 좋은 풍경 속에서 / 꽃 지는 시절에 또 만나는 군.” 비애를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만난 장소와 시기가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꽃 지는 시절” “좋은 풍경 속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나 두보는 이 평범한 구절 속에 만단의 정회와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내고 있다. 강남땅의 “좋은 풍경(好風景)”은, 옛날 같았으면 두 사람이 호기를 부리며 봄놀이 하는 배경이 됨직한 풍경이

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봄놀이는커녕 초라한 몰골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좋은 풍경 속에서.” “좋은 풍경”이 두보의 처량함을 더 증가시키고 있다. “꽃 지는 시절”이라는 시간적 배경도 이러한 처량함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려했던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늦봄의 쓸쓸함과 상실감은 두 사람의 몰락을 나타내고 나아가 당(唐) 제국의 쇠퇴를 암시하기도 한다.

마지막 구절의 “또 만나는 군”에서 “또(又)”의 의미 또한 심상치 않다. 기왕(岐王)과 최구(崔九)의 저택에서 만난 이래 40여년 만에 “또” 만난 것이다. 이 40년 동안에 당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대전란이 일어났고 이 전란이 두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강남땅에서 “또” 만났다는 사실은 처참했던 40년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든 전란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처지를 비통해 하는 표현도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그 많은 사연과 슬픔을 28자 속에 담담히 담아낸 두보의 예술적 능력이 놀랍다. 후대의 평자들이 이 시를 두보의 칠언절구 중 압권(壓卷)이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